건설공사 발주처(공공기관) 안전보건활동 수준향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afety and Health Activities in the Construction Contractor (Public Institutions)

문 지 환*
Moon, Ji-Hwan

요 약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은 대표이사 직속의 안전전담부서를 구성하고 있으나 순환보직 형태로 인력을 배치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며, 여러 부서에서 안전관리 기준을 제정하거나 활동을하여 안전관리 체계에 혼선을 주고 있다. 또한 관리감독자들은 회사의 안전관리 기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안전관리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활동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 조직, 안전관리 체계, 위험성평가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Keywords : 공공기관, 안전관리 조직, 안전관리 체계, 위험성평가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8년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산업재해, 자살, 교통사고를 절반으로 줄이는 내용의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우리나라의 재해의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표현하였다. 3대 프로젝트 대상은 산재사고, 교통사고, 자살사고이다. 중점내용 4가지는 생명·안전 최우선 일터 조성, 사망자 수 50% 감소, 위험을 유발하는 모든 주체별 역할 재정립(발주자, 원청, 사업주, 근로자), 공공 발주기관 선도모델 정립이 있다. 이를 시작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제정하였고 그 대책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후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개정안이 추진되었다. 더불어 공공발주기관 선도모델 정립의 의지에 따라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 수립,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 공공기관 안전 활동 수준 평가에 관한 고시가 제정되면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과 평가 기준이 제정되었고 공공기관들은 해당 기준에 맞춰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전담 안전관리 조직이 없던 공공기관은 신규로 조직을 설립하고 전담 안전관리 조직이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 역할수행을 하지 않던[12] 기관들은 새로이 안전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대상 안전 활동 수준 평가 결과 및 안전 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건설공사 발주처로써 안전보건 활동의 현황 및 문제점을 도출해보고 안전보건 활동 수준을 향상 방안을 연구해보고자 한다.

2. 본 론

2.1 조직구성 현황

건공공기관별 사업 분야에 따라 안전 관리조직을 구성하고 있으나, 기관의 사업 규모에 비해 전담 안전관리자의 수가 부족하다. 사내 안전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화 교육이나 지원 등도 구체적이지 않으며, 외부 우수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제도는 있으나 지속성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2.2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

건설공사를 발주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자사, 도급, 발주공사별로 매뉴얼·절차서·지침서가 따로 규정되어있다. 규정 및 지침의 적용 범위가 방대하고 관련된 교육 없이 문서만 전달되어 관리감독자를 포함한 안전보건 업무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 건설공사도급인에게 발주공사 관련된 안전기준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건설공사 도급인은 발주자의 안전

* 학생회원 선문대학교 일반대학원 산업공학과 재난안전전공 박사과정 cgtc4@naver.com

관리 기준을 모른 채 안전 활동을 이행하고 있다.

2.3 위험성평가 활동

공공기관은 안전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위험성 평가가 아닌 건설공사 계획수립 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기 위한 형식적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안전 활동 수준 평가 결과 중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표 및 내용을 살펴보면 주체별(발주자,설계자,시공자) 및 시기별(공사계획, 설계,시공단계) 위험성 평가가 적정하게 실시되지 않음을 분석할 수 있다.

3. 결 론

안전전담부서가 운영되고 있지만, 사업 규모에 비하여 인력이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 발주자의 안전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사업 및 운영 특성을 반영하여 안전전담부서의 인력 증가를 위해 배치 기준을 명확히 수립하고 적용해야 하며, 발주자 안전 조직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본사 안전전담부서 및 지사 감독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 안전교육 실시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안전전담부서는 순환보직 형태로 인력을 배치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상태로 실무에 투입됨으로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채용하거나 사전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 교육 이수 후 배치가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규모 및 특성을 반영하여 문제점들을 개선한다면 안전 활동의 수준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설문수, “공공기관의 안전보건경영 활동이 안전보건 성과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2021.
신동혁, “공공부분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2020
송영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공공기관 안전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인식변화 및 개선방향 연구”, 「한양대학교」, 2023